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 리포르타주

취재 및 사진: 김세은
자료제공: 라이트스토리

Material focus-Spot project-2편

‘LIGHTSTORY studio’

한지 조명 디자이너

김재성



Spot-Project

기획의도

종이나 도자기에서 출발하는 화이트 컬러 또는 가볍고 단순한 컬러 무드(color mood)가 점차 중요해진다. 글라스, 우드, 페이퍼 등의 원재료에 대한 컬러와 표면 효과, 라이팅의 접목 등으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동향. 이에 세라믹, 글라스, 페이퍼 소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공예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세라믹 디자이너 김하윤, 유리 공예가 이상민, 한지 조명 디자이너 김재성 3인을 선정해 원재료를 통해 도출하는 그들의 창의성을 엿보고 이를 통해 크라프트맨십에서 영감을 받는 디자인 산업분야의 내일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터뷰 형식은 그들이 생각하는 소재와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와 철학에 대하여 스팟 취재형식의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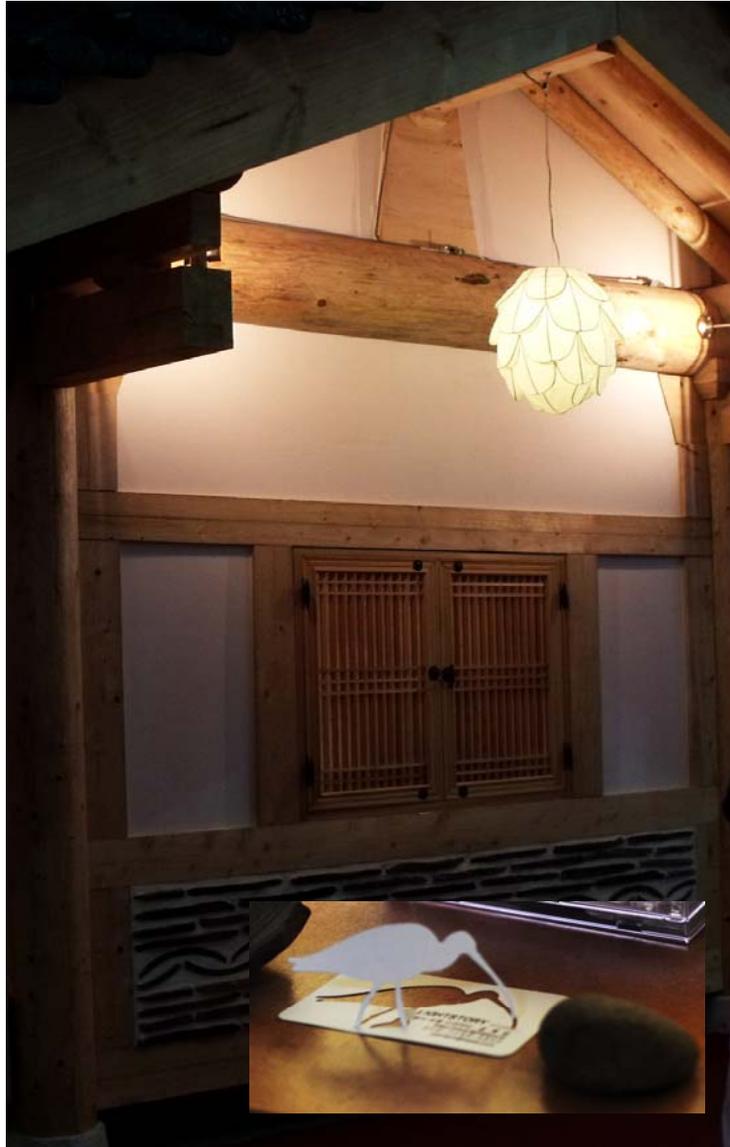


사진-1> 한 스타일 전시 전경
아래> 입체종이 명함

한국의 전통 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와 물성을 지니고 있을 것 인가? 역사와 참고 문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전통의 것을 지켜가고 있는 소수의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올해 7월 개최된 ‘한 스타일’ 전시를 통해 알게 된 한지 등을 만드는 김재성 디자이너를 만나 본다. 동양화를 전공하고 전통 등에 매료 되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그는 단순히 불교예식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템으로 인식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육성하려는 차원으로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창작공간”은 김재성디자이너를 비롯한 40여명이 선정되어 지역적으로 공간을 후원해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전통공예를 계승해나가고 있는 작가 입장에서 그 도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희망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2> 작업실 내부 작품



사진-3> 한지

온화한 빛의 색을 머금고 있는 한지 조명
Korean paper + light

빛의 투과율이 뛰어나며, 조도분포가 다른 재료에 비해 매우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빛을 품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의 섬유질이 길고 반투명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진-4> 작품 단면

간접조명 형식의 오브제 조명으로 눈부심이 없고 조도 분포가 균일 하여 부드러운 빛 때문에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은 온화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특성을 잘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한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한지 등의 경우 채색을 하게 된다. 수묵화와 흡사한 컬러링이 이루어 지는 데 일반 수묵화와 다른 부분은 염색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겉 표면만을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전체가 염색이 되듯 채색을 해주는 것이다.

한지의 경우 다른 재료에 비해 색소의 침투성이 뛰어나 색을 가장 잘 표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온화한 빛의 색을 발하게 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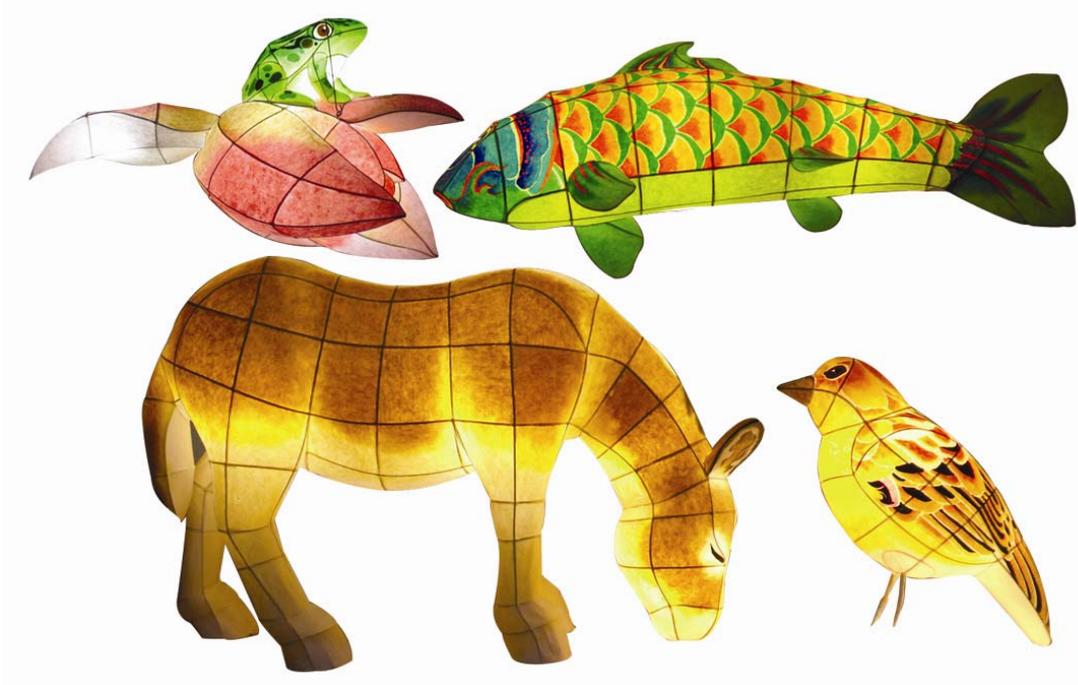


사진-4> 한지등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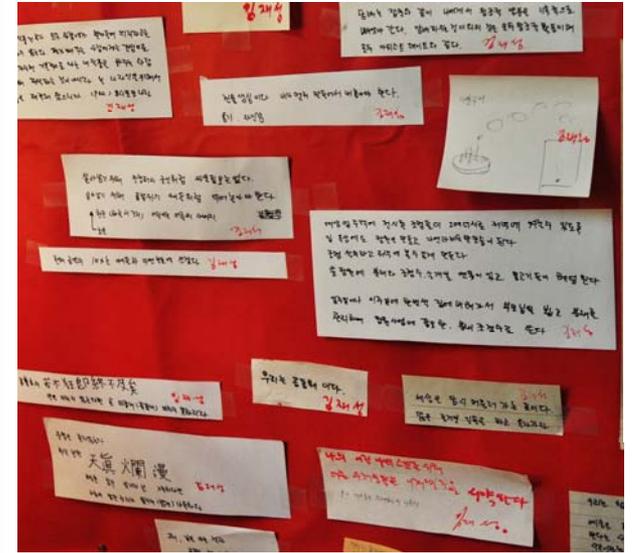


사진-4> 작업실 내부 작업노트

친 환경적 건강한 에너지 표현

조명작업의 모티브는 주로 자연이다. 자연물,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은유적으로 표현 한다. 주로 감성적으로 온순한 동물이다 꽃, 식물들을 표현하며 자연물들이 가진 에너지를 조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방식이다.

현대의 도시환경은 동,식물의 수가 감소 되며 가까운 곳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의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는 자연의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를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은 일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조건적인 에너지이다. 마치 자연처럼...

자연의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그의 한지 조명은 보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에너지와 에너지를 얻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작품 철학이다.



약력

2006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現- 빛 이야기 studio 대표,
신당 창작 아케이드' 입주 작가

전시

2007년 전영일 공방'대영 박물관 전시' 작가로 참여

2008년 공예 트렌드 페어 'lighting'전 전시

2009년 '한국 스타일 박람회' 참가

'힐링 뮤직 페스티벌' 한조 조명 설치